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작품개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ama@ntck.or.kr



차자공감 ∞ 희곡
∞ 작 ∞ 감 ∞

입체 ∞ 낭독 ∞ 공연
∞ ∞ ∞ ∞ ∞ ∞

국립극단 소극장 판

2023. 3. 24. ~ 3. 25.



잘 나가는 웹툰

bb

99

2023.

3.24.금 - 3.25.토

금 19:30

토 15:00

만드는 사람들

작 이민구 연출 신진호

출연 권겸민 박란주 성여진 신강수 조수연 한성현

스태프

조명 곽태준 음향 공한식 무대 이묵수 이수연

의상 김미나 조연출 방윤선

색맹이지만 이를 숨기고 웹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웹툰 PD 나안지.
어느 날, 동료 허대리가 나안지를 모델로
'나소유'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회사 생활 웹툰을 그린다.
출연료를 대가로 허대리가 작가인 것을 숨겨주기로 한 나안지.
하지만 웹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웹툰 속 주인공 '나소유'를 나안지라고 믿기 시작한다.
전혀 모르는 웹툰 속 이야기 때문에 나안지의 현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작가의 글

계약직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
글을 쓰면서도 생존을 위해 계약직으로 일한 시간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직원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계약 종료 날짜를 합의하고 하는 이야기들,
끝나고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은 결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던 어느 날,
대본 속에서 지워지는 캐릭터들의 이름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구분이 가지 않는 계약직들의 계약서와 서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사회란 것, 어른스럽다는 것, 시스템이란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 이민구

<냄새가 나>, <인간이 없다>, <개 짖는 소리>, <네가 들 수 없다면> 작 발표

희곡을 씁니다. 더 재밌는 얘기를 더 잘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극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곡을 씁니다.

연출의 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방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색맹이지만, 이를 숨기는 웹툰PD 나안지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던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잘 나가는 웹툰>은 만화를 가장한 우리 사회시스템의 모순을
등장 인물들의 살아남는 혹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연출 신진호

연출 <라이더-On the radar>, <소년대로>, <카르타고>, <햄릿연습>, <종이인간>
각색/연출 <환한밤>, <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비밀기지'에서 연출을 맡고 있다. 기존의 작업에 중심이 되는 사회시스템을 통해
내재해 있던 동시대 사회의 질문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극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잘 나가는 웹툰

작
이민구

색맹이지만 이를 숨기고 웹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웹툰 PD 나안지.
같은 회사 동료 허대리는 나안지를 모델로 '나소유'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회사원 웹툰으로 그린다. 그리고 출연료를 대가로 허대리가 작가인 것을 숨겨주기로 한 나안지.
처음 회사의 일상적인 내용이 소재로 하던 웹툰은 곧 반응이 사그라들면서
둘은 점차 만화적 과장을 보태기 시작한다.

작가는 "구분이 가지 않는 계약직들의 계약서와 서명들",
"사회란 것, 어른스럽다는 것, 시스템이란 구분 불가능한 것들"이란 작의를 밝히면서,
희곡의 인물들이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라지려 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도플갱어로 전락하는 구조를 통해 작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낸다.
그리고 이는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이려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성공하고
그리하여 좀 더 생존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확장된다.

소재에 걸맞게 극 구성과 전개, 인물 구축과 대사에 있어서 만화적 상상력과 독창성이 눈에 띈다.
이번 입체낭독공연을 통해 대본의 가능성과 장점이 더 탐색 되고 단단해지길 기대한다.

운영위원
이경미, 윤성호

창작공감 : 희곡

경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소통 창구로,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곡을 찾습니다.

국립극단은 동시대 화두를 탐구하는 희곡을 찾기 위한 온라인 상시투고 제도 [창작공감: 희곡]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모든 희곡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읽고 검토합니다.

추천작에 한해 낭독회를 진행하고, 작가, 배우, 관계자 및 관객과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작가가 희곡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작희곡과 작가들을 만나는 열린 창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희곡 발전가능성을 세심히 살핀 후

최종선정작을 대상으로 입체낭독공연을 제작합니다.

운영위원 이경미 윤성호

무대기술 총괄 정광호

제작감독 경은주

무대감독 김태연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김한경

마케팅 노소연

온라인 마케팅 조영채

티켓 김효진

대표안내원 강민주 김채은 박화란 이다영

하우스매니저 임아라

하우스안내원 고계령 김연정 김지수 최민아

김은송 강성준 노정균 설인화

홍보몰디자인 스튜디오 붐빔(대표 김은총 박현주)

옥외광고 영기획인쇄(대표 서성원)

기록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기록 영상 스튜디오 AA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붐빔(대표 김은총 박현주)

작품개발 총괄 정용성

작품개발 프로듀서 이슬예 김태은

주최 (재)국립극단

주관 아트로버컴퍼니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